



◇경기도 연천 보개산 지장암은 8월30일 지장보살상을 점안하고 마지막 법회를 봉행했다.

“남북이 통일되는날 지장사지 복원 기공식을 갖겠습니다.” 8월 30일 연천 보개산 지장암(주지 수법)에서 마지막법회가 열렸다. 지장암은 철터만 남아 있어 수법스님이 대웅전과 산신각등의 가건물을 짓고 사지복원 불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부대 사격장과 인접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사찰을 철거하고 이날 마지막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지장사는 신라 범일국사가 창건한 지장 영험도량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찰. 목은 이색이 지은 ‘오연

“통일 되는날 지장사 복원”

연천 지장암 8월30일 마지막 법회

신라~조선초 ‘영험있는 지장도량’ 명성 군사지역 이유 철거...지장보살상 봉안

을시’와 ‘보개산 지장사 중수기’에서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까 상당히 번창했던 지장도량이었음을 알게해 준다. 재미있는 전설도 전한다. 고려시대 자해대선사가 증수하고 주석하며 흥년이 들자 사찰에서 나오는 백토를 이용하여 어려운 백성들에게 국수를 팔아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장사 터에서 환희봉 정상을 보면 여섯분의 부처님의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하여 무학대사가 영주산에서 보개산

으로 산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지장사 마지막 법회에서 주지 수법스님은 “보개산 인근에 임시로 지장사를 지었다 남북이 통일되는날 복원불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서운한 마음을 비쳤다.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의 마지막 법회는 지장보살입상 봉안식에서 절정을 이뤘다. 불자들은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돼 지장사가 복원되기를 기원하며 지장보

살 정근을 했다. 이날 지장사지 법당터에 세워진 지장보살입상은 높이가 5m이며 지장사지 복원을 열원하는 지역 불자들의 원력으로 조성된 것이다. 법회에서 월운스님은 “철쭉산중이고 군사지역인 이곳에 와서 비구니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을 보니 목은 도량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며 “5일 우란분절을 앞두고 지장신앙의 원력이 깃든 이곳에 통일을 염원하며 지장보살을 세우게 된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법스님과 연천지역 불자들은 매달 지장재일날 지장보살에게 다례를 올리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nia.com)

우리절 불사 경남통영 ‘선화사’



◇8월31일 경건법회를 연 선화사는 일주문과 천수관음전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영화·사명대사 수행터 새단장

고산스님이 불사 원력 대웅전 요사채 완공 천수관음전도 지을 계획

“육지연화장(慈悲蓮華藏) 두미문세존(頭尾世尊)이 계승이 육지도, 우미도, 세존도, 문도 등 주위의 섬이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무작정 영화대사와 사명대사의 토굴터를 찾아 연화도에 왔다가 인연이 되어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고산스님(쌍계사 주지)이 들려주는 연화사(주지 도음) 창건의 계기이다. ‘연화장 세계 즉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알려 거둔 처음과 끝을 세존에게 물어보라’는 계승처럼 연화사는 연꽃 봉우리적인 산세 가운데 단정히 앉아 연화장 세계를 활짝 펼쳐 보이게 된 것이다. 4백년전 연화도사가 세 비구니와 함께 수도하다 열반에 들고 유언에 따라 수장되자 한송이의 연꽃으로 변해 승화하였다 하여 유래한 섬이름 연화도. 경남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에 위치한 그 연꽃섬(연화도) 가운데 연화사가 창건됐다. 창건과 함께 연화도사에

엄한 4백년전 역사도 되찾게 된 것이다. 연화도사, 사명대사, 자운선사 등 이 섬에서 수행한 연화사들의 맥을 잇는 가람인 연화사 불불 낙성식이 8월 31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연화도의 유일한 사찰인 연화사는 1천3백여평에 연건평 1백20평 규모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요사채 2동 석가여래진신사리비, 연화사 창건비, 8각9층 탑 등이 대청을 이루고 서해를 향해 나아가는 반야용선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망망대해에 솟은 연화사는 연화대사와 사명대사의 토굴터 등 곳곳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들을 이으며 신심깊은 불자들의 새로운 기도도량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전과 요사채 건물 불사를 마치고 일주문 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주지 도음스님은 “고산스님께서 연화도 초행길에 발견한 샘터에 천수관음전을 세울 계획”이라며 “앞으로 3백여 섬주민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는 정진도량 기도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실직자·무의탁노인·장애인에 무료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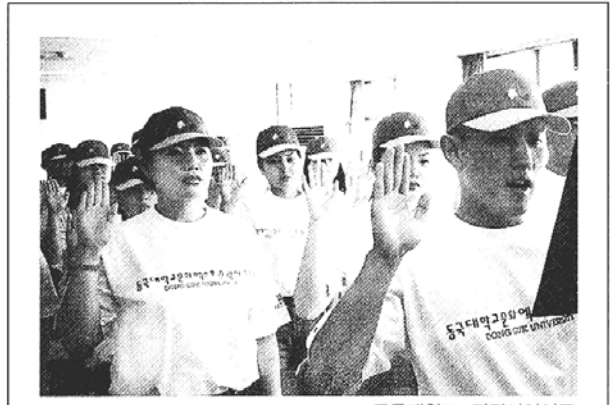
대구에 ‘희망의 집’ 개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는 11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중사무소에 실직자와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 ‘희망의 집’을 개소한다. 50여명 규모의 ‘희망의 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12시에 남구 희망의 집터에 등록된 실직자(전체 등록인원은 5백여명) 3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이다. 또 매주 금요일 낮12시에는 지역내 노인이나 장애인, 실직자들에게 급식을 실시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무료급식소 주방에 필요한 대형 싱크대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등 물품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053)476-66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현공스님 달마도 전시

경남 사천 모은사 연화불교회(회장 이현중)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현공스님 달마도 전시회’를 10일까지 불현한 무의탁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청소년 가정을 돕는데 써 달라며 달마상 3백여점을 기증한 모은사 주지 현공스님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도필선 기자



문화엑스포 지원단 발족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는 2일 경주엑스포 진흥관 3층에서 ‘경주엑스포 관광지원단’ (단장 서태양) 발대식을 개최했다. 33명의 교수와 재학생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세계민속공연단 안내 및 통역서비스 △PC 통신을 통한 홍보 △5대의 전용전화를 통한 관광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용전화번호는 (0561)770-2277, PC 통신은 천리안 GO GJOUR, 하이텔 GO EXPO98, 유니텔 GO EXPO, 나무누리 GO EXPO98. 이윤호기자(yhlee@buddhania.com)

원로시인·독립운동가 박희선거사 입적



원로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야석 박희선거사가 8월 29일 숙환으로 입적했다. 향년 76세. 박거사는 전북대학교를 지내는 등 후학 지도와 함께 <선의 탐구> <에세이 반야심경> <금강경> 등 많은 불교서적을 펴내며 수많은 불우를 도와 왔다. 유해는 31일 화장되어 흥남 노산 지장암에 봉안됐다.

총무정사 종각 낙성

9군단 전주 총무정사(주지법사 이동배)는 8월 30일 종각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천운 함림사 주지, 도영 금산사주지스님을 비롯 3백여명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양로원서 목욕봉사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본부장 박수관)는 8월26일 윤천동 애광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펼쳤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는 매일 1회 정기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목욕보조, 손발다듬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앞서 부산본부는 8월 23일 범어사 주변 금정산 가꾸기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천미희 기자

폐교지에 청소년수련원

광주 덕명사(주지 무등)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인수해 어린이·청소년 수련원을 개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소재 봉황서초등학교 덕곡분교를 인수한 덕명사는 현재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덕곡분교는 대지 1천5백여평에 1백평규모의 교실건물 1동, 부속건물 5동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덕명사는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 법당과 수련관 등으로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덕명사는 15일부터 개조 불사에 착수, 12월 개원법회를 갖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수련회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광주 대불청 체육대회

대한불교 청년회 광주지구(지구장 이주성)는 13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체육대회는 청백 팀으로 나눠 기마전, 씨름 등의 전통놀이와 축구 배구등이 진행된다. 김중근 기자

“IMF 실업자 위해 써주세요”

재소자가 변호사비용 5백만원 쾌척

교도소에 복역중인 한 재소자가 IMF 여파로 인한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전해달라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놓아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3월 1순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임모씨(28). 임씨는 1일 광주교도소를 찾은 무신스님(운니선원·실업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업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2실 재판 변호사 비용 5백만원을 전달하고 실업대책위원회 회원에도 가입했다. 임씨는 신문을 통해 실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회하는 뜻에서 보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를 면회한 무신스님은 “수감이후 불교의 인과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느끼고 기금을 내게 됐다”고 전하며 “이런분들이 있는 한 실업자들의 실업극복의지가 한층 고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광주실업대책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상담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임씨는 2실에서 국선번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이프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 · 지장경 · 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강경 강의 : 테이프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이프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이프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 TAPE 목록

①불공의식 ②삼신이운 ③신장청·신중권공 ④상단청 ⑤상단권공·거목 ⑥대령·관육의식 ⑦대령·관육의식 ⑧대령·관육의식 ⑨영반·복정소리·대전수소리 ⑩영산작법 ⑪영산작법 ⑫영산작법 ⑬영산작법 ⑭지정청사 ⑮지정청사 ⑯지정권공 ⑰지정권공 ⑱전시식 ⑲배송 ⑳운심계 ㉑범사이운·명전전안 ㉒중성·천수작법·요집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이프 1질(가격 ₩50,000)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육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